



기초기술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 임직원 여러분,
다사다난했던 2005년이 저물고, 병술년 새해가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.
새해를 맞아 우리 연구회 가족 모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.

지난해 우리나라는 산, 학, 연 연구자들이 열심히 일해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준 결과, 세계 10대 무역국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.

이처럼 든든한 국가적 자산인 여러분들은 국민과 정부에게 ‘하면 된다’는 프론티어 정신의 표상이며, 삶의 질 향상과 유비쿼터스 사회를 열어가는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작년은 과학기술계가 NIS 사령탑인 ‘과학기술혁신본부’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체제로 탈바꿈한 정말 뜻 깊은 해였습니다.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공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국가과학기술 정책,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, R&D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. 이는 산, 학, 연 연구주체에게 지금까지와 다른, 21세기형 글로벌 경쟁체제에 맞는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새해에 연구회는 무엇보다 정부와 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“출연(연) 연구활성화 방안”의 구체적 실천 및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 즉, 기관별 중장기 연구개발종합발전계획의 심의, 승인, 작년말 시범 착수한 전문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전 기관 확산, 성과중심의 기관평가와 기본사업평가, R&D 성과의 경제적 기여도 제고, 연구역량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, 3개 연구회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행정관리실 운영, 지속적인 경영혁신 등을 수행하는 한편, 기초(연) 부설기관인 ‘핵융합연구센터’와 ‘국가수리과학연구소’가 조기에 기관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

친애하는 기초기술연구회 가족 여러분,

우리 연구회의 고유미션은 미래 첨단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하여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올해 약 3,800억원 규모의 국민세금을 쓰게 됩니다. 그런 우리가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보답하려면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긴 안목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. 저 역시 우리 연구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, 연구개발에 차질 없도록 적기에 의사를 결정하여 연구실마다 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있고, 그 준비는 성공으로 치닫게 해 줍니다.

모두들 새로운 각오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.

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
병술년 원단

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박 상 대